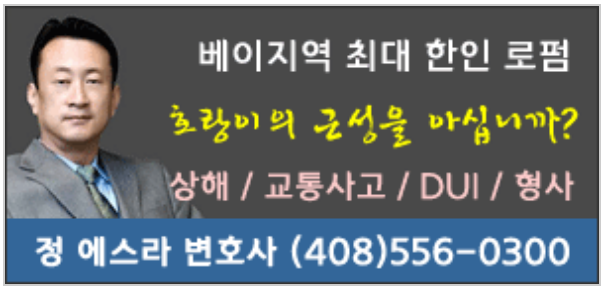
다솜한국학교, 한지 공예 체험으로 한국 전통문화 가치 되새겨

by **KDT** *posted* **Nov 23, 2026**





고학년 한지 접시·저학년 한지등 제작...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원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가 21일 '2026-2027학년도 한국문화 시리즈'의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한지 공예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한지의 역사와 특징, 활용법을 배우고 직접 작품을 만들며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체감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의미를 더해 교육적 취지를 높였다.



<21일 다솜한국학교에서 진행한 한지 공예 체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한지 작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수업에 앞서 최미영 교장은 한지가 닥나무를 원료로 제작되며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제작 문화가 발달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질기고 보존성이 뛰어나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록과 문화유산을 지켜 온 우리 고유의 전통 재료임을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은 연령별로 나뉘어 공예 작품 제작에 참여했다. 고학년 학생들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후원으로 마련된 재료를 활용해 한지 접시를 만들었다.



<한지 접시를 만들고 있다>

권미정 교무 선생님의 단계별 지도에 따라 학생들은 한지가 단단히 밀착되도록 앞뒷면에 모두 풀칠하는 기법을 익히며 정성껏 접시를 완성했다.

저학년 학생들은 장서윤 선생님의 안내로 한지등 만들기에 도전했다. 학생들은 한지를 손으로 찢고 자르며 풀로 붙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한지 특유의 결 무늬와 색감을 직접 경험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한지를 단순한 종이가 아닌 선조들의 지혜와 장인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천 년을 이어 온 한지의 문화적 가치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차세대에도 소중히 계승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지를 이용한 공예 체험을 하고 있는 다솜한국학교 학생들>

<이온안 기자>